
Willem de Kooning | Zao Wou-Ki

글 | 심민정, 아트모라 큐레이터 프로그램



Willem de Kooning
Sail Clothes, 1949
Oil, enamel, charcoal,
and graphite on board
27 x 32 inches
Private Collection Photograph
By Elisabeth Bernstei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에 위치한 레비 고비 Lévy Govy 에서 추상 풍경화 가인 자오우키 Zao Wou-Ki (1920-2013) 와 윌리엄 드 쿠닝 Willem de Kooning (1904-1997)의 2인 전시를 연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드쿠닝의 11작품과 자오우키의 9작품, 총 20개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이번 해 9월에 열릴 홍콩 아트 바젤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크리스티를 떠난 브렛고비 Brett Gorny 가 도미니크레비 Dominique Levy와파트너십을맺은 후 첫 전시로 뉴욕맨해튼어퍼 이스트로 그들의 갤러리를 확장 이전 한 후의 첫 전시이기도 하다. 현대미술의 중점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놓은 추상표현주의는 2 차대전 이후 현대미술의 한 기둥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들의 작업에서 비쳐지는 우연적 즉흥성은 예술의 광범위한 구현을 가능하게 한 면에서 의미가 크다. 레비 고비 갤러리는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미술사조로 연결된 이 두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로테르담 미술 아카데미에서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을 공부한 윌리엄 드쿠닝은 1926 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잭슨 폴락, 아실 고르키, 마크 로스코 같은 화가들과 어울렸다. 1938 년 아실고르키의 영향이 엿보이는 남성 인물 연작에서는 서정적인 색채와 보다 순수한 추상 표현방법이 두드러졌다. 그의 명성은 1948 년 뉴욕 찰스 이건 Charles Egan 갤러리에서

열린 첫 개인전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흑백의 자유롭고 걱정적인 형상의 그의 작품은 당시 뉴욕 미술계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폴락의 회화가 고상한 추상의 고뇌라면 그는 속물적인 근성과 풍자를 담은 형상을 담는다. 그에게서 형상은 이미 재현을 떠났으며 그는 인체에서 찾을수 있는 격렬함과 폭력을 형상의 과정적인 붓질로 제시하는 것이다.



Zao Wou-Ki
Untitled, 1949
Oil on Cardboard
17 7/8 x 21 1/2 inches
Private Collection Photograph
By Patrick Goetelen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서예와 수묵을 배우며 자란 중국계 프랑스 작가 자오 우키는 1921 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1935 년 항저우 국립 미술학교를 마쳤다. 그는 그곳에서 전통적인 중국 회화와 서양화를 배웠고 1948 년 처음 방문한 파리에서 피카소 Picasso, 마티스 Matisse, 클레 Klee 같은 유럽 작가들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유럽 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아시아 전통예술을 놓지 않았다. 먹으로 서예 느낌과 다채로운 색감을 나타내며 동서양 조화를 보여주었다. 자우오키는 초기에는 구상에 주력했지만 1950 년대 이후 점점 추상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자우 오키가 과감히 주체를 버리고 초현실적인 색과 선을 쓴 반면 드쿠닝은 대상에 대한 심오한 고심 끝에 형태를 해체해 나갔다. 레비고비 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동시대 작가들이 서로 교류나 영향이 없었지만, 추상표현주의라는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암시한다. 특히 드쿠닝의 Sail Cloth 와 자우오키의 Untitled 는 1949, 같은 해의 탄생한 작업으로써 한눈에 보기에도 비슷한 색채와 붓의 표현방식은 알게 모르게 두 작가를 이어 주고있다. 나란히 병치된 구성의 전시는 드쿠닝과 자우오키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 했고 본인은 이곳에서 동시대를 머물렀던 두 작가의 대화의 장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